

성경 그리고 토마스 아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101)(12/10/2021)

제 3 권 내적 위로

제 8 장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김, 1-3 절

창 18:27 -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요 12:25 -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시 73:22-23 - 22.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23.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1. <제자> 나는 티끌과 재에 지나지 않는 자이지만, 감히 내 주께 아뢰입니다(창 18:27). 내가 내 자신을 그 이상으로 여긴다면, 주께서 나를 대적하시고, 나의 죄들이 진실을 증언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러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내 자신이 하찮은 존재임을 인정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로 여기며, 내 자신을 높일 생각을 모두 버리고, 내 자신이 티끌이라는 것을 사실 그대로 시인하고 받아들인다면, 주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주의 빛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모든 생각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골짜기에 완전히 잠겨서, 영원토록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 골짜기에서 주님은 “내가 지금은 어떤 존재이고, 과거에는 어떤 존재였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를 내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우매하여, 지금까지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시 73:22). 주께서 나를 홀로 내버려 두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 전적으로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하지만 주께서 나를 잠깐만 돌아보아 주셔도, 나는 그 즉시 강해지고 새로운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내 자신의 무게로 말미암아 늘 깊은 심연으로 가라앉고 있던 내가 이렇게 갑자기 주의 은혜로 감싸져서 들어 올려지는 것은 정말 놀랍고 기이한 일입니다.

2.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은혜 가운데서 나보다 먼저 행하시다가, 수많은 곤경들 속에서 나를 도우시며, 큰 위험들로부터 나를 보호하시고,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해악들로부터 나를 건져 주십니다. 사실,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하는 잘못된 길로 갔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렸었는데, 진심으로 오직 주님만을 구하고 사랑함으로써, 내 자신과 주님을 둘 다 찾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인자하시고 긍휼에 풍성한 주께서 아무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는 나를 분에 넘치게 대해 주시고, 내가 소망하거나 구한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3. 나의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나는 그 어떤 은택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도, 주님은 존귀하시고 무한히 선하셔서, 심지어 배은망덕한 자들과 주를 멀리 떠나 있는 자들에게까지도 은택을 베푸시기를 결코 그치지 않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께로 돌이켜서, 주께 감사하며 우리 자신을 낮추고 헌신하게 해 주소서. 주는 우리의 구원이시고 능력이시며 힘이 되십니다.

말씀과 해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일어나는 고백은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칼빈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은 서로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결하심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죄악됨과 불결함을 알게 되며,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알수록 우리의 어리석음을 알며,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알수록 우리의 무능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지전능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인간 실존에 대한 인식은 우리를 겸손하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을수록 그리고 그 은혜의 의미를 제대로 알수록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해 질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된다. 주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더 큰 은혜로 감싸주신다.

시 73 편 저자는 자신은 주 앞에서 짐승 같은 무지한 존재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오른손을 붙드셨다고 말했다. 시 73:22-23 - 22.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23.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님은 은혜 가운데 우리를 비천함에서 건지시고, 연약함을 바꾸어 강하게 하시고,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지혜와 분별의 은혜를 주신다. 뱀전 5:5 -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고후 12:9-10 - 9.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 때에 강함이라. 잠 11:2 -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비천한 내가 존귀하게 되고, 연약한 내가 강하게 되며, 어리석은 내가 지혜롭게 되는 것은 나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은혜이다. 겸손한 사람은 바로 그 은혜를 받아 누린다. 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감사의 이유, 찬양의 이유, 기쁨의 이유이며,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잘 섬기며 더 붙잡아야 하는 이유가 된다.

오늘도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며,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의 강함에 의지하고, 나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주님의 지혜와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하루를 살자.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더욱 겸손해짐으로 더 깊고 더 풍성한 은혜를 받아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함께 나눌 기도 제목

1. 나 자신의 비천함과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 주시는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2. 기근, 가난, 굶주림, 질병, 전쟁 등의 혹독한 고난 속에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회복의 은총을 입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3. 한국사회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목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